

## 통일 한국, 북한의 사회 변화와 여성

### I. 들어가며

☞ 광복 70년을 맞이하면서 통일한국을 만들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한 상황임. 특히 오랫동안 서로 다른 체제에서 지내온 남북한이 한 국가가 된다는 것은 체제 통합을 넘어, 각기 다른 체제 내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의 삶의 조건이 변화하는 사회통합을 의미함.

■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서 가장 중요한 민생, 환경, 문화의 3대 소통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성, 여성계의 목소리가 무엇보다 중요함. 여성의 역량과 경험이 충분히 녹아있는 이러한 분야를 중심으로 차별을 해소하고 화해 협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통일준비과정에 핵심임. 통일은 성인지적인 기반을 중심으로 여성의 권익과 이해가 확대되는 여성 중심의 사회통합 방향으로 진행되어야함.

■ 통일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삶과 연결되는 만큼 여성친화적인, 여성이 주체가 되는 통일을 위해서는 '통일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활성화시켜야 하기 때문임.

■ 여성이 직면한 생활 속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고 여성의 관점에서 사회통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통일시대에 부합하는 사회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선결과제임.

☞ 통일, 북한의 변화에 발맞춰 여성

■ 남북한 여성들이 국제사회에서 협력할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하여 남북한 간의 교류를 견인하고, 실질적인 평화통일 기반구축의 계기를 만들고자 총 4회의 포럼을 개최함.

■ '여성과 통일포럼'의 주제는 아래와 같음.

- 여성독립운동가 재조명
- 남북 통일과정에서의 여성의 역할
- 통일한국사회를 위한 여성·가족정책 과제 발굴
- 최근 북한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의 삶의 변화



## II. 주요논의

### 1. 광복에서 통일로, 여성이 쓰는 한국사회 미래 전망

#### ☞ 광복 70년의 역사적 의미와 통일을 향한 여성의 역할<sup>1)</sup>

- 독립운동사에서 여성독립운동에 관한 연구는 주목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체계적인 연구 또한 미흡했으나 의병 항쟁 지원을 시작으로 국채보상운동, 3·1운동, 사회운동, 의열 투쟁, 한국광복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독립운동 전면에서 활동하였음.

- 통일 준비에 여성의 역할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음.

- 철저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추어야 함.
- 한반도 주변 정세, 외교적 역할관계에 주목해 한반도가 세계 평화의 점화지가 되어야 함.
- 북한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문화적 교류 활성화
- 이산가족의 만남의 장 확대
- 여성간의 연대의식 강화
- 차세대 여성 인재 육성
-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한 여성들의 정체성 확보

#### ☞ 지역을 중심으로 살피본 항일운동과 여성

- 마을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독립운동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조직 운영 및 지속적 협력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지역 사례를 제시함. 여성독립운동은 항일투쟁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역할 또한 동시에 수행하여 국가의 위기상황을 극복하였음.

- 경북지역 여성 독립운동의 특성과 의미<sup>2)</sup>

- 경북 독립운동은 한국 독립운동의 발상지이며 독립유공자로 포상된 인물, 자정순국자가 많았다는 특징이 있음.

- 경북 지역 독립유공자로 포상된 여성은 12명으로 국채 보상부인회,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 중국지역 활동 등을 주로 함. 주요 인물로는 이효정, 이병희, 전월순, 이희경, 남자현, 박순부와 그 며느리 이해동 등이 있음.

#### ■ 강원여성의 항일독립운동과 리더십<sup>3)</sup>

- 강원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규모있게 조직화되고 지속적 이진 않으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저항함.
- 대표적 의병장 윤희순을 통해 살펴보면 의병전쟁에의 참여로 독립운동을 시작, 주로 선전 활동과 식량 의복 등 보급품을 전달하면서 활동의 폭을 넓혀 감. 이후 만주로 망명, 노학당을 운영하며 계몽활동과 항일운동을 함.

### 2. 평화통일 국민공감대 세미나 : 여성, 화해와 평화의 물길

#### ☞ 여성과 평화통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sup>4)</sup>

- 통일은 하나의 사건이 아닌 과정임. 통일은 단순히 동일한 제도와 정치경제적 구조를 형성하는 체제통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체제 내에 살아온 사람들의 삶의 조건을 변화시켜가는 과정임. 특히 여성들의 삶의 조건과 환경을 총체적으로 재구조화하고 재창조하는 과정임.

- 평화통일에 대한 여성들의 참여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평화통일실천 여성사회협약 추진운동' 등 여성이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평화통일운동이 필요함.

- 평화통일에 대한 여성들의 참여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평화통일실천 여성사회협약 추진운동' 등 여성이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평화통일운동이 필요함.

- 통일준비과정에 대한 여성의 참여는 민족동질성 회복에 초점을 맞춘 통일논의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며,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어야 함. 결과적으로 통일준비 자체가 여성 친화적이어야 함.

### 3. 통일 한국사회와 여성 · 가족정책 과제

#### ☐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주요 이슈와 통일 이후의 정책 변화

- 독일의 여성정책영역은 동등한 의사결정 참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일 · 가정 양립, 성폭력 근절, 성적 권리 등이며 가족정책 영역은 가족대상 재정 지원, 육아 등 가족 대상 인프라 제공, 육아휴직 등의 부모권리, 결혼 및 이혼 등임.
- 여성 및 가족이슈가 독일 통일과정에서 차지한 비중은 크지 않음.
- 독일 통일 이후 여성 및 가족정책이 변화함. 통일 이후 여성 및 가족정책 등 다양한 서독의 제도가 구 동독 지역에 도입 적용됨. 정책목표는 경제부문에서 여성, 특히 어머니의 지위강화, 출산을 개선, 아동친화적 사회환경 구축 등임.
- 통일 한국을 위해 독일의 통일 사례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은 간극 인정임. 여성 및 가족이슈가 통일과정에서 차지하게 될 비중은 낮으므로 세부사항 조율은 통일 이후에 진행 가능할 것임.
- 남한의 모델을 북한에 단순 이양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회적 통합 과정은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요구함.

#### ☐ 통일시대를 대비한 여성 · 가족 정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

- 한국의 유치원 및 조기교육부문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어머니에 의한 조기교육이 지배적임. 여성의 노동 참여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다수의 여성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스스로 돌보기를 선택하고 있음. 북한의 유치원에서는 이데올로기에서 탈피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규모조정과 현대화가 필요<sup>5)</sup>.
- 법이나 제도의 통합은 핵심적인 이슈에서 대체로 동서독 간의 합의가 가능했다는 사실이 매우 고무적임. 동서독 통일 25년이 지났지만 동서독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며 한국의 경우에는 사회적 분열을 극복하고 의식의 통합에

이르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 분명하며 여성과 가족 영역에서 서독과 동독의 의식이나 정서의 차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궁금함<sup>6)</sup>.

-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우리사회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독일을 포함하여 베트남 등의 사례에 대한 진지하고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함. 개혁개방 이후 베트남 사회에서의 여성의 고용비중과 참여에서의 성차는 자본주의 사회에 비해 명확히 진전되었으나 여성 고용의 질 역시 중요하다는 점에서 여성의 정규직 비율이나 남녀의 임금격차, 나아가 여성의 경력단절 정도와 양상 역시 확인이 필요함<sup>7)</sup>.
- 베트남은 통일 초기단계부터 사회주의 어젠다에 여성을 포함하여 사회 재생산의 핵심요소로 재생산 노동을 인식하고 여성들을 가정에서 벗어나 사회화하여 남녀가 함께 양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해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음. 앞으로 남북한의 경우도 통일과정에서부터 남북한 여성 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와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향후 여성 통일의 운동방향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및 정치참여 확대와 함께 교육, 건강, 노동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함<sup>8)</sup>.
- 통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음. '하향식' 방법이고 또 하나는 '상향식' 방법임. 독일과 베트남의 모델이 '하향식' 이었다면 한국 통일의 가장 좋은 방법은 '상향식' 방법이라고 생각함<sup>9)</sup>.
- 중국, 남한, 북한, 일본, 평양 등 대도시들이 우선 협력하여 '동북아 여성문화주간'을 만들어 서로 번갈아 개최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됨.
- 남북한 분단의 현실에서 여성 및 여성단체의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와 통일관련 사업 추진 및 남북한 교류의 활성화가 필요함. 지자체 여성단체의 남북한 교류협력 사례 활용 및 남북한 교류 협력에서 지자체 및 직증단체의 여성참여 비율 제고, 여성단체의 남북교류 협력 및 사회 통합 활동에 대한 적극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 확대<sup>10)</sup>.

## 4. 북한사회의 변화와 여성의 삶

### ❏ 북한의 양강도 해산시장 리뷰

■ 해산시장은 2003년 해산시 해신동에 세워졌으며 중국 장백현이 바로 보이는 압록강에 인접해있음. 시장의 매대에는 의류, 식료품, 신발, 위생용품, 돼지고기, 의약품 등이 있으며 전체 매대 중 의류 매대가 약 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지역 인민위원회가 각 동사무소를 통해 인민반에 매대를 골고루 배정하며 인민반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우선 배정함.

• 배정되는 매대는 공짜이기 때문에 의류와 같이 돈이 잘 벌리는 매대는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불법으로 배정되고 노인들에게는 채소, 조미료, 양말, 의약품과 같이 돈 벌이가 잘 되지 않는 매대가 배정됨. 매대를 배정받은 노인들은 본인이 장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녀들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파는 경우도 있음.

### ❏ 인민반 여성들의 사회생활 분석

■ 북한은 여성의 사회적 등급을 위와 같이 배급수준으로 매기며 56세까지 이러한 조직에 속함. 배급급수를 살펴 볼 때, 일/500g(직장생필)은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혹은 공장들에 이름만 등록해두고 한 달에 1만원 이상 씩 별도로 내고 조직생활에 참가하지 않는 부류임.

• 직장 생필은 기업이나 공장에 출근해도 배급이 없거나 생활비 2,000원으로는 강냉이 국수 1kg도 살 수 없을 정도로 벌이가 작기 때문에 실시함. 또 하루 종일 장사를 해야하는데 직장에 다니게 되면 시간을 낼 수 없기 때문에 하게 됨.

### ❏ 북한의 경제적 변화를 중심으로 한 통일정책 수립

■ 북한의 붕괴에 초점을 둔 통일정책만을 수립할 수는 없으며 북한의 최근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이를 고려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함<sup>1)</sup>.

• 남북교류를 준비하거나 통일을 준비할 때 북한 사회의 최근 변화를 고려해야 정확한 정책이 도출될 수 있음.

• 최근 북한을 직접 다녀온 사람들에 의하면 북한사회는 시장이 확대되고 개인소유권에 대한 열망 등 시장경제에 맞게 변화하고 있음. 예전에는 국가의 무상배급,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으로 인해 국가의 각종 요구를 수락할 수 밖에 없었으나 현재는 국가에서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들면서 정부에 대한 충정도가 하락하고 개인소유권에 대한 열망이 생김.

•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민주주의 의식이 생기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음. 북한 당국자와 엘리트는 북한주민의 내부변화를 이미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나가고 있는 중임.

## III

## 성과 및 제언

❏ 광복 이후 여성의 사회적 기여를 조명하고 정치·경제·문화·사회·체육 등 여러 분야의 여성대표들과 통일준비 참여방안을 논의하는 등 시의적절한 이슈로 포럼을 개최함.

❏ 광복 70주년을 맞아 그간 다소 소외되었던 '여성의 역사', 여성의 역할 조명에 의미가 크며, 통일 인식확산 및 여성 주도 평화통일준비를 위한 실천과제 발굴에 기여함.

- 1)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 2) 한재숙, 전 위덕대학교 총장
- 3) 박미현, 강원여성사연구소 소장
- 4) 김은주, 한국여성정책연구소장
- 5) Bernhard Seliger, 한스자이펠재단 서울사무소 대표
- 6)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 7) 김혜영, 숙명여대 교수
- 8) 김원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9) Keyu Gong, 상해국제관계연구소 부소장
- 10) 강일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11) 김은주, 한국여성정책연구소장